

# 현대제철 인천공장 비대면 사회공헌활동 ‘활발’



1 푸른 동구 나무심기 행사 2 설 선물세트를 저소득층에 기증하고 있다.  
3 전통시장 상품권을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연일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기업 사회공헌활동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봉사활동이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올해 들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적응하면서 봉사활동을 조금씩 진행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사상 첫 거리두기 4단계가 발표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비대면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2018년부터 3년간 총 1억원을 투자해 진행한 풀뿌리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4월에 가졌다. 동구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측백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3년 협약이어서 기간이 지났지만 미세먼지 감소와 주민 산책로 환경 개선 등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업인 만큼 올해에는 현대제철 임직원이 참여한 모금을 바탕으로 4천8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했다.

2018년에는 화도진공원에 배롱나무 등 1천400그루, 2019년 영산홍 3천100그루, 맥문동 5천300본, 왕벚꽃나무 1주에 이어 지난해에는 송현공원 인근에 왕벚꽃나무 52주를 심었다.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책로와 쉼터 조성도 병행했다.

## 행복나눔 식권 전달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해 행복나눔 식권을 동구 저소득층 1천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대신 동구청에서 약식으로 전달식을 했다. 올해에도 식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이·미용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가정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복나눔 이·미용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 명절맞이 선물세트, 전통시장 장보기, 쌀나누기 등 행사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각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50개를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현대시장에서 9개 복식관이 참여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했다. 연말에는 쌀나누기 행사도 진행했다. 이 같은 행사는 현대제철의 대표적인 연례 사회공헌활동이다.

현대제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헌혈 캠페인을 펼쳐 코로나로 인한 혈액 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❶